

여러분의 몫입니다.

넘치는 감사

감사함이 저절로 샘솟아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긴 여정 중, 올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일, 스태프들은 공식적으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직원이 되는 서류에 서명을 하기 위해 모였고, 조촐한 점심 파티도 열었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지역회 모임에서, 전국 각지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새로운 이사들을 선출했고, 공천위원회는 프로그램 자문위원 선거를 위해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지도 체제, 그리고 직원 이동을 통하여 -여성국이 아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로써 10월에 있을 첫번째 연회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세계선교부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새로운 “선교적 연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교독문과 함께 축하를 나누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기념비적이었으며, 에벤에셀(Ebenezer)은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영찬송가 28장)

그리고 축하해야 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초콜릿 회사인 허쉬사가 2020년까지 자사의 모든 제품에 공정무역 코코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쉬사에 대한 엽서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전 모임에서, 허쉬사의 대표들은 그들이 코코아 생산자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들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허쉬사가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사람들을 “위해” 다른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코코아 공급자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어린이 노동 착취의 근절과 공정무역 제품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사용을 허쉬사에 요구했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동북부지역회의 전 회장인 사브리나 화이트(Sabrina White)는 허쉬사로부터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허쉬사의 담당자는 보도 자료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엽서를 보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또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또는 점령지역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는 그룹이 지하철에 붙여 놓은 포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의 다른 종교 기관들과 협력하였습니다. 뉴욕시 교통 당국은 그러한 포스터를 붙이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수정 헌법 제 1 조에 따라, 내용이 아무리 비열하다 해도 당국이 광고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수정 헌법 제 1 조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보다 높은 기준을 수용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 비방을 일삼는 한 사람이 우리가 폭력을 옹호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논리를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1881 년, 자신의 편리와 편안함을 접어두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지방회 모임에서, 성령의 감화로 변화된 후 특별헌금을 드렸던 우리의 선조가 생각납니다. 그녀가 드린 5 달러짜리 금화가 지금의 범사감사헌금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이 특별하고, 멋지고, 기쁘고, 모험적인 시간에, 저는 범사감사헌금에 추가 헌금을 더 드렸습니다. 감사함이 끊임 없이 저절로 샘솟아 오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